

01 교회소식

선교의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해외 지교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가나안 정복사’ 시리즈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통해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는 이유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03 기획특집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보내 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 도우심을 받는 충만한 신앙의 비결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치료받은 뒤 은혜로 충만해요”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통해 천식을 치료받고, 폐에 찬물이 사라지는 권능을 체험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20호 2020년 5월 2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해외에서 온 편지

“
**세상의 빛과 소금돼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



케냐 나이로비에서
정명호 목사

이번 주에도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교회에서 준비하여 보내드린 오디오 설교 말씀으로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케냐 MIS(만민국제신학교)에 가입된 지·협력교회 주의 종들에게도 오디오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성도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저희 교회는 우모자 지역 행정관서에서 실시하는 불우 이웃돕기 행사에 매주 참여해 교회 이미지가 더욱 좋아지고,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교회 직원, 그리고 일꾼들과 성도들은 자원해 주변 이웃과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테클라 날리마 성도님(42세)은 이웃이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갔으나 치료비가 모자라 의사에게 진료 거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치료비를 마련해 주고 음식을 제공하며 도와주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이웃은 매우 감사해하며 만민교회에 대해 안 좋게 전했었는데 죄송하다며,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나이로비만민교회에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테클라 날리마 성도님은 구제 한 금액의 갑절을 오빠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니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



인도 델리에서
김상휘 목사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간증으로 전합니다.

샤리마르가든 지역에서 온 28살의 알티 자매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GCNTV HINDI'를 통해 만민중앙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갑상선 열병과 두통을 앓고 있었는데, 지난 4월에 저희 교회 일꾼의 심방을 통해 유튜브로 2월 은사집회 녹화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해 주시는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회개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열과 두통이 모두 사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하여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목에 궤양이 있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는데,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영상을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고, 그 뒤 궤양이 치유되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후 그녀는 두 자매를 전도하여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세 자매 모두 매일같이 당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로운 설교에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
**온라인 통해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발저릭 푸룬 선교사

저희 몽골만민교회의 성도들은 각 가정과 처소에서 만민중앙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며 날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몽골어 동시통역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셔서 해외에 있는 몽골 성도들까지 은혜롭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뒤, SNS를 활용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몽골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몽골 성도가 서로 간증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해 치료받고 문제 해결 받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곤란으로 날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지던 체체게 집사님(66세)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회개한 뒤 예배 시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 영상을 통해 기도를 받고 치료되었습니다.

벌어르마 집사님(55세)은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났는데 권능의 무안단물을 바르고 즉시 치료되었고, 아민다르 아동(4세)은 7일 동안 배변을 하지 못했는데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스진 자매(17세)는 폐통증을 치료받았지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성도들과 긴밀히 교제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내가 너로 신이 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7:1~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하심으로 그의 말을 보장하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말씀에 의지해 모세는 애굽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1. 애굽에서 행한 모세의 권능, 열 재앙

애굽에 도착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에서 건지시고자 자신을 보내셨음을 알려 주며 그 증거로서 여러 이적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새로운 나라로 향할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지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 광야에서 제사를 올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전해도 오히려 바로는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하니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애굽의 '열 재앙'입니다.

재앙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점차 커져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피의 재앙으로,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애굽 전역의 물이 피로 변해 애굽 사람들은 굶히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출 7:20~24).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애굽에는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모세의 말에 따라 하천에서 수많은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온 나라 안에 들끓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황급히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 떼를 없애 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지만(출 8:8), 일단 위기를 모면하자 돌변해(출 8:15) 세 번째 이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게 하니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었고, 수많은 이가 사람과 생축에게 기어올랐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출 8:19)라고 고백했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마음을 강박케 함으

로 더 심한 파리의 재앙을 초래합니다.

애굽 온 백성의 집은 물론, 신하들의 집과 바로의 궁중까지 더러운 파리 떼로 뒤덮였지요.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 파리 떼를 없애 주면 백성들을 보내리라 약속하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사정하였지만 막상 파리 떼가 사라지자 그는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심한 악질의 재앙과 독종의 재앙이 임해 사람들은 물론 온 애굽의 생축들까지 고통을 받기에 이릅니다. 이후에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으니 불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애굽 전역의 농작물은 물론 집 밖에 나와 있던 짐승이나 사람까지 죽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우박의 재앙에서 남아 있던 작물들도 바로의 강박함으로 인해 뒤따른 메뚜기 재앙으로 다 사라졌지요(출 10:14~15).

이렇게 재앙이 임할 때마다 왕은 이를 면하게 해 주면 백성들을 놓아 주겠다고 사정했지만 재앙이 사라지면 번번이 마음을 변개하곤 했습니다.

마침내 바로의 강박함으로 인해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고, 흑암의 재앙이 임해 애굽 온 땅에서 빛이 사라지고 말았지요(출 10:21~23). 흑암의 재앙을 당하고도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 결국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당하게 됩니다(출 12:29~30).

2. 열 재앙에 담긴 영적 의미

애굽에 임했던 재앙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떠한 관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처럼 자세히 기록해 두신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애굽 전역에 나타난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더 큰 이유는 열 재앙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는 이유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피의 재앙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식수로 고통 받는 것이므로 영적으로 볼 때 가정이나 직장도 같이 우리 주변에서 시험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개구리의 재앙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부부간에 화목이 깨어지는 등 직장

이나 일터에서 사단의 역사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의 재앙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잠재되어 있던 작은 일들이 갑자기 큰 일로 비화되어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형제나 부부간에 사소한 일이 발단이 되어 나중에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이지요. 사람에게 더러움이 있을 때 이가 기생하는 것이니 이가 사람에게 올랐다는 것은 악의 모양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의 재앙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파리 떼의 재앙부터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쌓인 경우이므로 철저한 통회자복이 필요합니다. 파리가 더러운 곳에서 생겨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질병을 옮기는 것처럼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을 여기저기 옮김으로 인해 그것이 울무가 되어 자신이나 자녀, 남편, 아내, 일터 위에 질병이나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마 15:18~19).

악질의 재앙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 큰 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악질보다 더 심한 것이 독종의 재앙으로서 악질은 속으로 침투하는 내적인 병이지만 독종은 겉으로까지 드러나는 병이지요.

우박의 재앙은 어떤 불의의 사고나 일로 인해 재물에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큰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갑자기 많은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이지요. 이에서 더해 완전히 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때는 메뚜기의 재앙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나거나 병세가 위중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탈선한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등 가정, 일터, 사업터까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흑암은 영적으로 어두움의 재앙, 죽음 직전의 재앙으로서 삶의 모든 분야에 소망이 끊어지고 앞날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아끼는 재산까지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강박한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지요. 이는 많은 재앙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악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커다란 재앙이지만 아직까지 생명의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끝으로 장자의 재앙은 영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 중 누군가 죽게 되거나 혹은 완전히 타락의 길로 빠져 구원받지 못할 길로 들어가는 경우이지요.

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재앙은 더 커지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이 라면 한 가지 재앙을 만난다 해도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임했을 때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출 8:21~22).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성도들 역시 고센 땅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통해 재앙을 만나는 이유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셨으니 공의와 사랑 가운데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범사에 행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강림절을 맞아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의 비결

01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의지하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심을 여러 증거들로 보이셨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했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단번에 수천 명도 회개시키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켰다. 성령의 능력으로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등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보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도,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혹자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성령이 소멸된

것은 아닌가?’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박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판단정죄하는 길가밭의 마음이 아니라면 대부분 성령을 받는다. 설령 죄를 지었어도 대부분의 죄는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안에 살고자 노력하면 용서해 주시기에 성령이 쉽게 소멸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고 늘 의지해야 한다(엡 6:18).

세상을 좇는 옛사람의 모습은 벗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알 수 없는 것도 알게 해 주신다.

02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는 성령의 음성으로 선에 대해 깨우쳐 주신다. 그런데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깨달을 수 없고, 선한 마음을 이룰 수 없을뿐더러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다.

가령 영적인 사랑, 선, 성령의 열매 등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말씀들을 통해 성령은 최고의 선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루는 길을 깨우쳐 주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저렇게 높은 차원의 선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런 믿음의 행함은 아직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바라봐 주신다. 각자의 믿음의 단계에서 무엇을 깨우치고 행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자상하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이 깨우쳐 주셔도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다. 가령,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우쳐 주시는데 ‘나는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며 말씀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선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함이다. 이렇게 계속 성령의 깨우침을 무시하면 성령이 주관하시는 선한 생각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입을 수 없다.

성령이 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오직 ‘아멘’ 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03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신다. 이때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

혹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 하시니까’라고 성령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행하기 위해 자신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주관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사모한다.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복종시켜 나간다.

주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성령이 계시니 할 수 있다’ 믿고 의지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

이 필요하며, 시간이 갈수록 이런 행함이 쌓이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이 점점 쉬워진다. 그러니 늘 성령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없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가족은 이웃의 전도로 광주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언니의 간질 증세로 인해 온 가족이 몸도, 마음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지요.

교회에 다니면서 온갖 질병을 하나님께 치료받은 수많은 성도의 간증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아버지는 언니의 질병을 치료받자 서울 만민중앙교회에 가서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믿음으로 악수를 하셨습니다. 그 뒤 놀랍게도 언니의 간질 증세가 온전히 치료되어 저희 가정은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겨울, 제게 천식이라는 호흡기 질병이 생겼습니다. 이른 새벽에 호흡곤란으로 잠에서 깨어 쉼쉼거리며 기침을 하다가 아침을 맞아야 했지요. 잠들기 전에는 머리맡에 늘 흡입기를 챙겨 뒀야 했고, 흡입기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약물 흡입기까지 사용해야 하니 잠자리에 눕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시작되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외출 시에도 흡입기를 항상 소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비 오는 날 등 기온이나 생활환경이 맞지 않으면 기관지가 좁아져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날이 많았지요.

올해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은사집회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할 때, 천식을 치료받았어요!”

조호미 권찰 (32세, 광주만민교회, 사진 우측 두 번째)

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뒤, 제 마음에는 사모함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출근할 때 ‘만

민뉴스’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성구 암송을 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고자 노력했지요.

1월 은사집회 시, 이수진 목사님이 당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체험했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만민교회에서 한 주 뒤 예정된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성령충만기도회 및 손수건 집회’를 사모하게 되었고, 준비 기도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함과 환경을 타하는 마음등을 통회자복 하니 온몸이 뜨겁고 머리에서부터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2월 9일 주일, 집회 당일 이른 새벽부터 기침이 시작됐지만 치료받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흡입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천식약도 복용하지 않았지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을 맞이했지만 마음은 기뻐했습니다.

집회 시 이복님 원장님의 ‘감정을 제어하라’는 설교 말씀에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며 또다시 통회자복이 임했습니다. 원장님이 제 목에 손을 얹어 주실 때에 파스를 붙인 듯한 시원함을 느꼈지요. 숨을 길게 내쉬고 또 들며 마셔보니 호흡이 전과 달랐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뒤, 저는 신앙생활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기쁨과 감사로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행함을 보였을 뿐인데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시공을 초월한 손수건 기도로 폐의 물이 사라졌어요!”

겔부 레마 레마 성도 (35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저는 2019년 5월, 건설 현장에서 석고 보드를 천장에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발판 위에서 발을 옮겨 놓는 순간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약 10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몸의 오른쪽이 심하게 아팠고 통증이 심했지요. 울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약을 먹은 뒤 고통은 진정되었습니다.

한동안 관찰은 것 같았는데 몇 달 뒤, 갈비뼈에 통증이 느껴졌고 호흡하기도 불편했습니다. 상태가 심해져 2019년 12월에 병원을 찾으니 의사는 “폐에 물이 차 있으니 빨리 물을 빼내는 시술을 해야 합니

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술비용이 만만치 않아 재정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던 저는 마침내 시술 날짜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일예배 때 한진범 담임목사님이 한국 만민중앙교회의 2월 은사집회에 대한 광고를 하시며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였고, 어머니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월 28일, GCN방송을 통해 은사집회에 참석한 저는 사실 온통 시술에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아리다가 죽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임목사님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기도 받으라고 권면하셔서 저는 주님께서 꼭 역사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뒤 화면을 통해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

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땀이 많이 났고, 기도가 마쳐져 “아멘” 할 때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예약된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제 폐 속에 있던 물이 사라져 시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일로 저는 하나님 사랑의 공간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몇몇 성도들과 지역 기도회와 예배를 함께하고 있지만 늘 부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미디어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원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제주시 2길 32 페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겸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